

미래에셋, 한 달새 시총 110% ↑… 증권株 최초 ‘30조 클럽’

박현주 회장, 글로벌 중심 경영혁신
스페이스X 등 혁신기업 투자 성과
증권가, 재평가 국면 진입 분석도

미래에셋증권이 시가총액 31조원을 돌파하며 증권주가운데 처음으로 ‘3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 등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성과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리며, 단기간에 시총이 두 배 이상 불어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보통주와 우선주(미래에셋증권우·미래에셋증권2우B)를 합산한 시가총액은 31조74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4조9860억원 수준이던 시총이 한 달여 만에 110% 넘게 증가한 것이다.

주가 상승 폭도 가파르다.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종가 기준 5만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들어(YTD) 주가는 107.71% 상승했으며,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180.39%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자기자본 규모 상위 10대 증권사 가운데 가장 가파른 주가 상승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 (원형사진)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래에셋증권

급등세의 직접적인 촉매는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설이다. 지난 3일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는 하루 만에 28% 급등했다. 일론 머스크가 관련 게시물에 “그렇다(Yes)”는 댓글을 남기면서 시장에서는 합병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미래에셋그룹은 2022~2023년 스페이스X에 2억7800만달러(약 4000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캐피탈이 펀드를 조성하고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계열사 및 리테일 자금이 출자자(LP)로 참여하는 구조다.

증권가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급등이 단순 테마가 아니라, 기존 증권주 밸류에이션 체계를 흔드는 ‘재평가’ 국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키움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이 기존 증권주에 적용되던 PBR(주가순자산비율)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PER(주가수익비율) 기반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진단하며 목표주가를 6만5000원으로 상향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그간 증권

주는 내수 중심 구조와 거래대금 변동성 등으로 PBR 중심 평가를 받아왔지만,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이익의 지속성과 플랫폼 전략 가시성이 높아 기존 평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이 추진 중인 ‘토큰화(tokenization)’ 전략 역시 프리미엄 요인으로 부각된다. 안 연구원은 “토큰화된 금융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24시간 거래하는 ‘Everything Exchange(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래소)’ 모델은 시장 선점이 곧 유동성과 점유율로 이어진다”며 “미래에셋증권은 코빗 인수 추진과 단일 디지털 월렛 전략을 통해 전자자산·암호화폐·토큰증권을 아우르는 플랫폼 구축에 가장 앞서 있다”고 분석했다.

로빈후드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을 토큰화해 하나의 앱에서 모든 자산의 거래가 가능케 하는 ‘Everything Exchange’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진행 중이며, 로빈후드가 이러한 토큰화 계획 발표 이후 PER 30~50배에서 거래됐다는 게 안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렇듯 증권가의 시각이 ‘테마 급등’에서 ‘구조적 재평가’로 옮겨가면서, 시장의 관심은 미래에셋그룹이 이러한 변

화를 실제 성장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그룹의 창업주이자 글로벌 전략가(GSO)인 박현주 회장이 글로벌 전략 오피스를 전면 내세우며 ‘제2창업’을 선언한 점은 이번 주가 재평가 흐름과 맞물린다는 평가다.

박 회장은 최근 “스페이스X와 xAI, DJI 등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확보한 회수금과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200억달러(약 28조5000억원)를 벌여 글로벌 M&A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토큰화를 통해 자산의 경계를 허물고, 주식·ETF·디지털 자산 거래가 가능한 통합 MTS를 6월 홍콩에서 출시할 것”이라며 “미래에셋이 디지털 자산 투자 그리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급등세에 대한 경계론도 나온다.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현재 PBR이 1.6배를 넘어 실적 개선 폭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오버슈팅 상태”라며 “스페이스X 가치는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코스피 여력 6000 이상… 24시간 거래 추진”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간담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대전략 제시
“자본시장 선진화에 모든 역량 집중”

“코스피는 최소한 6000을 넘어설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본시장은 대도약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생산적 금융 전환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4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좀비기업’ 퇴출 기조에 적극 부응해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폐지 기준을 지속 강화하고, 상장 폐지 심사 조직·인력을 보강해 한계기업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합동대응단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시장감시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AI 등 첨단기술 맞춤형 상장을 촉진하고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지원한다. 성장자금 적시 조달을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코스닥 기업 분석보고서 확대와 더불어 비상장기업 인큐베이팅 기능을 점진한다. 이를 위해 코스닥 분부 조직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인력의 전문성·독립성을 제고하고 공시 가이드라인 개선 등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24시간 거래체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관련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는 6월을 목표로 호가가 이전되지 않는 프리마켓(오전 7시~8시)과 애프터마켓(오후 4시~8시)을 신설하고,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인 거래시간을 6월부터는 12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말까지 24시간 거래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파생시장 24시간 거래와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고, 영문공시 의무 조기 시행 등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노력도 함께 전개한다.

한국거래소는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짚고, 글로벌 자본시장 거래시간 확대 흐름에 대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NYSE Arca)는 16시간 거래를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는 나스닥과 함께 24시간 거래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런던, 홍콩거래소에서도 24시간 거래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이사장은 “나스닥 발표를 보면 지난해 정규시간 이외의 거래에서 투자한 투자자들의 통계를 보면 미국 투자자들이 20%, 해외투자자가 80%에 달한다. 그 80% 중 한국 투자자가 50%를 차지한다”며 “거래소 간 글로벌 경쟁은 심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대체거래소(ATS) 등과의 동등한 경쟁 체제를 조성하기 위해 거래시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시간 연장안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방적 강행’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증권업종 노조들은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 연장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조와의 협의가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거래소 업무 전반에 AI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인텍스 비즈니스 역량을 발전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현재 해외에서만 거래되던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도입하고, 위클리 옵션 등 신상품 및 배출권 선물 상장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파생시장 30주년을 맞이해 파생상품 투자자변 확대, 해양·금융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부산 금융중심지 위상 강화에 나섰다. 인재육성 등 사회공헌 사업도 수혜자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최우형 “케이뱅크, SME·플랫폼 사업 확대”

〈케이뱅크 은행장〉

간담회 통해 IPO 전략·비전 밝혀

“시장의 눈높이를 반영해 이전 대비 공모가를 낮추고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을 조정하는 등 주주 친화적 공모 구조를 마련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케이뱅크의 최우형 은행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뱅크 상장을 통해 SME(개인사업자·중소기업) 시장 진출과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 구축, 디지털 자산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하겠다”며 “대한민국 금융 혁신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기업공개(IPO) 삼수생인 케이뱅크가 제시한 주당 희망 공모가는 8300~9500원. 공모 희망가는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 1.38~1.56배로 이전 공모 시점 대비 약 20% 낮췄다. 공모 주식 수는 6000만주다. 지난번 IPO 때보다 주당 희망 공모가(9500~1만2000원)와 공모 주식 수(8000만주) 모두 낮아졌으며, 공모 금액은 희망 밴드 상단 기준 5700억원이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3조3672억~3조8541억원으로, 지난 상장 추진 때 목표치였던 5조원보다 1조원가량 몸값을 낮췄다. 코스피가 5300을 넘기는 등 주식 시장이 활황이지만 가격과 공급 물량을 내려 수요예측 흥행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공모가 확정은 12일, 일반 청약은 20~23일 이틀간 진행된다.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공동 대표 주관을 맡았으며 신한투자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한다. 상장 예정일은 3월 5일이다.

케이뱅크는 상장 이후 확보한 자금으로 SME 금융과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가계대출 중심 포트폴리오를 기업대출로 넓혀 2030



케이뱅크 최우형 은행장이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케이뱅크 IPO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뱅크의 상장 후 사업계획과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케이뱅크

년까지 가계와 SME 비중을 5대5로 맞추겠다는 목표다.

케이뱅크는 2025년 말 기준 고객 1553만명, 여신 잔액 18조4000억원, 수신 잔액 2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당기순이익은 1281억원으로 사상 최대였으며 지난해 3분기까지도 순이익 1034억원을 냈다.

케이뱅크는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도 추진한다. 주식·채권뿐 아니라 가상자산, 금 등 대체투자 상품군을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결제 협력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성장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의 제휴가 핵심 동력이었던 만큼 의존도는 과제로 꼽힌다. 가상자산이 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케이뱅크가 업비트에 지급한 이자 비용은 2023년 95억원에서 2024년 567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최 행장은 “케이뱅크의 예금 기반은 꾸준히 성장 중이고, 업비트 예치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2조~8조원 사이에서 변동한다”며 “기초 체력이 탄탄해 업비트 자금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